

주일가정예배

[어버이 주일]

2022년 5월 8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 30:20)

자비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호혜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새 창조의 능력,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흠향하시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78장** **다같이**

-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한 분이 외 또 어디있으랴
-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음성 귓가에 들리네
-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은 즐거운 때일세
- 어머니 크신 사랑 뉘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값는다 장담해도 못 값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중에 어머니 부르리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인도자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설 교 『성령님과 동행하라』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89장 다같이

1.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곤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2.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시사 어둠 속을 헤멜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 심히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3.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홀리아카데미>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이 주님 은혜로 잘 진행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마을목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곡밸리 소풍(5/14, 토)을 통해 젊은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5. 헌금안내

※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성령님과 동행하라

갈라디아서 5:25

제임스 패커는 30년의 기도와 묵상을 『성령을 아는 지식』(원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동행하라)이라는 책에 담았다.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것은 아니다. 창조 때 수면 위로 운행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즉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변호인, 강하게 하는 자, 후원자’라고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활동 덕분이다.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자고 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5:25). ‘행하다’라는 것은 ‘스토이케오’에서 왔는데, ‘선 안에서 걷는다’ ‘규칙을 지킨다’ ‘통제 아래 살아간다’는 뜻이다. 신자는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야 한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은사보다는 내적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라는 의미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열매 즉 내적 변화와 성숙을 목표해야 한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도 내적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 성령의 특별하고도 변함없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신자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임재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진리를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시키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갈망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를 작은 예수로 탈바꿈하신다. ▶기독교인은 스스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셨는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도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성령은 신자 안에 내주하는 ‘은혜롭고 주도적인 손님’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진로를 그리시는데 그 결과는 성결 즉 거룩함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가까이함’ ‘하나님을 닮음’ ‘하나님께 끌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등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결이다. 성결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명령이다. 우리는 성결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매일 성결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결의 본질은 헌신을 통한 변화다. 성결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다. 성결의 뿌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연합이다. 성결의 주체는 성령이다. 성결의 체험은 영적 싸움의 결과다. 성결의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결의 핵심은 사랑이다. 성결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이 성결한 신자다. 진정한 성결은 성품과 태도에서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이다. ▶에반 로버츠는 “성령을 공경하라”고 한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도록 삶을 성령께 맡겨야 한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과 보조를 함께 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성령 사역의 중심이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성결해지는 데 있다.